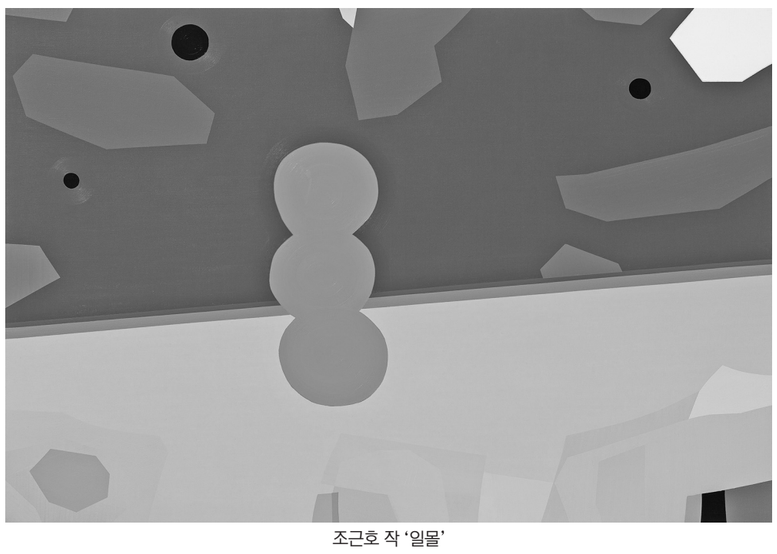
“새해 아침 모두 안녕하신가”… 일상들 회복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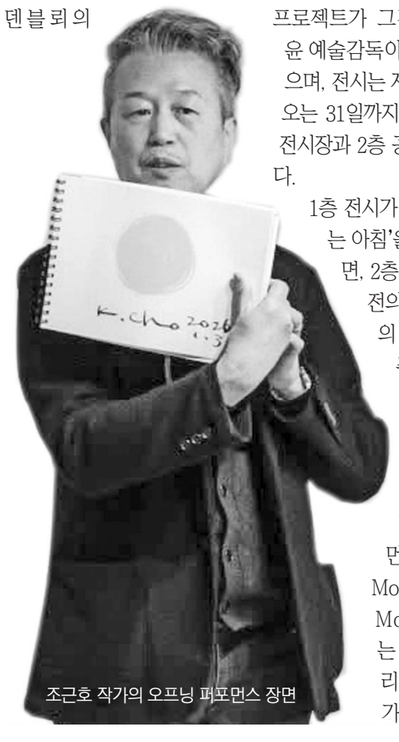
광주리아트센터 신년 기획전 31일까지
조근호 개인전·보리스 담블리 등 연계展
“멈춤·시작 사이 놓인 우리의 시간” 조망


조근호 작 ‘일몰’

보리스 담블리&소피 덴블뢰 전시 전경.

새해 아침 모두의 기운생동과 안녕에 대해 “오늘의 우리는, 어떤 아침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전시가 마련된다.

광주리아트센터가 신년 기획전으로 마련한 중견 조근호 개인전과 연계 전시인 보리스 담블리&소피 덴블뢰의 프로젝트가 그것으로, 남궁윤 예술감독이 기획을 맡았으며, 전시는 지난 3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센터 내 1층 전시장과 2층 공간에서 열린다.


조근호 작가의 오프닝 퍼포먼스 장면

1층 전시가 ‘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이야기한다면, 2층 전시는 그 이전의 멈춤과 질문의 순간을 보여주며 두 전시가 서로 대화를 이루게 되는구조를사유하고 있다.

먼저 ‘Good Morning, New Morning’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조근호 작가는 자신만의 독창적 회화세계인 ‘뭉치산수’(Mungchi Sansu)에 몰입 중인 가운데 리아트센터 1층 전체를 작품으로 채우고 있다.

이 개인전은 상실 이후의 시간과 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회화를 통해 사유하는 동시에 매일 매일을 일기처럼 기록하며, 그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현실 속에서 느낀 균열들을 조용히 모아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내는 점이 특징으로 읽힌다.

이 작업들의 과정은 단순한 누적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불러와 회복을 시도하는 일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의 파편을 더듬어보며, 그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을 붙잡고 현재와 앞으로의 시간을 다시 바라본다.

전시 제목인 ‘Good Morning, New Morning’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인사와 함께 우리에게 조심스레 묻고 있다. 상실과 불안이 겹쳐진 시대 속에서 “안녕하신가요”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해 보자는 취지다.

조근호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뭉치산수’(Mungchi Sansu)는 내가 일기를 쓰듯 매일의 시간을 기록하고, 그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낸 작업이다. 이미 지나간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회복을 시도한다. 이 전시가 각자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떠올리게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2층에서 열리는 보리스 담블리와 소피 덴블뢰의 프로젝트 연계전시는 ‘The Hanged Man’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타로 카드 ‘매달린 사람’에서 출발한 이 작업은 세계가 뒤집힌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는 전환의 시간을 다룬다.

연계 전시에 나선 보리스 담블리 작가는 “전시 제목 ‘The Hanged Man’은 멈춤의 순간을 다룬다. 세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잠시 방향을 뒤집어 봄으로써 또 다른 방식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오프닝과 퍼포먼스 리뷰가 성황리 열렸다. 오프닝에는 지역의 작가, 기획자, 시민들이 함께 모여 전시의 시작을 축하했다. 조근호 작가의 오픈 드로잉 퍼포먼스는 하루의 기록을 한 점의 색으로 응축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 주며, 관객들이 일부 작업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또 2층에서 진행된 연계전시 퍼포먼스에서는 몸을 뒤집고 매달으는 전환의 순간을 통해 멈춤·불안·다시 일어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강렬한 몰입을 만들어내는 등 관람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유도해냈다.

기획자인 남궁윤 예술감독(리아트센터)은 이번 두 전시에 대해 “회복의 순간에 주목한다. 매일의 기록이 하나의 화면으로 응축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실 이후에도 여전히 ‘다시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층과 2층의 두 전시는 멈춤과 시작 사이에 놓인 우리의 시간을 함께 비춘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과 희생의 역사 반추

정미경 제2 소설집 ‘맹자야 제발 덕분에’ 출간
‘여순항쟁’ 아픔 조망…국가폭력 폐해 드러내

순천대 10·19여순연구소에서 5년째 유족들의 상처를 직접 채록·정리하는 일을 해오면서 ‘여순항쟁’의 아픔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문학적 형상화를 추구해온 정미경 작가가 두 번째 소설집 ‘맹자야 제발 덕분에’(문학들 刊)를 펴냈다.

첫 소설집 ‘공마당’으로 제3회 부마항쟁문학상을 수상한 정 작가는 첫 소설집에 이어 이번 작품집 역시 소설적 구성과 깊이를 더하고 주제를 심화시켜 ‘여순항쟁’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 소설적 구성을 최대한 배제하며 역사적 사건의 상처와 증상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려 했던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한 이번 작품집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 상처가 개인의 삶과 신체에 남긴 증상, 그리고 그 증상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서사로 진화하는 듯 읽힌다.

작가의 소설은 이제 단순한 ‘증언’을 넘어 상처가 개인의 삶과 신체에 남긴 증상, 그리고 그 증상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서사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그의 소설에는 상처투성이인 여성들이 등장한다. 한결같이 모두 아프다. 이들은 우울, 섭식장애, 가출 같은 신경증적 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부조리로 얼룩진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이를테면 어머니의 반복적인 가출과 그로 인해 돌봄을 떠맡아야 했던 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서사로 작동하는데, 역사의 종언보다는 세대를 넘어 전염되는 상처가 폭넓게 몸과 정신을 지배한다.

그 상처들은 오롯이 국가폭력으로부터 온 것이어서 그 폐해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하는, 그런 류의 상처가 아닌 것이다. 세대를 흘러서 전염돼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폭력이 남긴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표제작 ‘맹자야 제발 덕분에’에 등장하는 인물은 맹자로, 당돌한 캐릭터로 그려진다. 맹자는 군인과 산사람 사이에서, 태극기와 인공기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했다. 산사람들의 강압에

의해 인민위원장이 됐던 맹자의 아버지는 국군들의 총살로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사범학교를 나와 교사를 하던 작은아버지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이제 집에는 여자들만 남았다.

그럼에도 맹자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일상을 구가한다. 마을사람들은 맹자를 근심어린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까지 한다.

이렇듯 가부장적 질서와 공포가 지배하던 상황에서도 맹자는 울거나 숨는 대신, 사건을 회피하지 않으며 보고, 듣고, 기억한다. 이 점에서 맹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의 원형에 가깝다.

맹자의 시선은 이데올로기나 권력에 포획되지 않은 채,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소설 말미에서 맹자가 ‘붓’을 물려받는 장면은 상징적이다. 이는 단지 가문의 희망을 잇는 도구가 아니라, 젠더와 이념을 넘어 역사를 기록할 미래의 화자를 예고한다.

이 소설은 국가 폭력, 가족의 해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과 희생의 역사가 드러난다.

김영삼 평론가는 “작가의 새로운 소설들은 가혹한 진실에 얽힌 피 묻은 문장 위에 픽션적 장치들을 덧입힘으로써 한 걸음 더 진화한 듯하다. 눈에 띄는 것은 ‘아픈 여자들’의 신경증적 증상들”이라면서 “우리의 맹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을 지키며 남자 어른들이 끌려간 곳을 찾는 일에 열중이다. 어머니와 언니는 약하지만 맹자는 당돌하고 강하다”고 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BTS 컴백에 ‘달려라 방탄’ 역주행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위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을 발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22년 발매곡 ‘달려라 방탄’이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7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달려라 방탄’은 앞서 브라질·핀란드 등 전 세계 61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도 정상을 밟은 데 이어 빌보드 세부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달려라 방탄’은 2022년 6월 발매된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의 수록곡이다.

빅히트뮤직은 “컴백을 앞두고 전 세계 ‘아미’(팬덤명)의 자발적인 스트리밍이 가져온 결과”라며 “팬들은 팀의 과거곡을 찾아 들으며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2018년 발매곡 ‘앙팡맨’(Anpanman)도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 1위를 기록했고, 리더 RM의 라이브 방송을 계기로 그의 솔로 2집 수록곡 ‘너츠’(Nuts)도 같은 차트에서 2위로 깜짝 재진입했다.

방탄소년단의 신보 발매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기존 발표곡이 일제히 순위를 끌어올렸다.

스포티파이의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는 지민의 ‘후’(Who)가 32위, 진의 ‘돈트 세이 유 러브 미’(Don’t Say You Love Me)가 38위, 정국의 ‘세븐’(Seven)이 62위, 뷔와 박효신의 듀엣곡 ‘윈터 어헤드’(Winter Ahead)가 102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순위가 각각 48계단, 36계단, 54계단, 80계단 상승한 것이다.

한편, 외신들도 방탄소년단의 컴백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빌보드는 “약 4년에 달하는 공백을 마무리하고 K팝을 대표하는 거대한 아티스트가 귀환하는 순간”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히트곡 제목에 빗대 “방탄소년단이 2026년을 ‘다이너마이트’처럼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연합뉴스

고 박형철 시인 추모 등 내용 ‘다채’

문학동인회 ‘시향’ 동인집 29집 펴내

문학동인회 ‘시향’(회장 심홍섭)의 동인집 29집 ‘시향’이 도서출판 한림에서 최근 출간됐다.

이번 29호에는 추모시를 비롯해 지역명소를 형상화한 시편, 회원작품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졌다. 추모시에는 한림문학재단을 이끌다 별세한 박형철 대표(시인 전 광주문인협회장)를 기리는 시들로 채워졌다.

추모시에는 김원채씨의 시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사람’과 김홍식씨의 ‘고인을 추모하며’, 김상섭씨의 피안으로 가는 길, 김영천씨의 ‘아이고 형님, 우리들의 큰 형님’, 양혜숙씨의 ‘아직 가실 길 빨라서’, 이태범씨의 ‘획을 긋다’, 이태응씨의 ‘오지 않는 3월’, 정선수씨의 ‘영원한 님에게!’, 정형택씨의 ‘급하신 길 어찌 가셨나요’ 등이 실렸다. 박 대표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담아냈다.

지역명소를 형상화한 시편에는 담양 습지, 백수해안길, 장성필암서원, 선암사, 영산강 갈대밭, 무등골, 비금도 등이 소개되고 있다.

회원 작품으로는 정형택 시인의 ‘5월은 과거가 아니고 ing다’와 ‘인간 가시고기’ 및 ‘이름만 불러줘도 시가 되는구나’ 등 회원 작품 85편이 실렸다.

심홍섭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29집은 서로 다름을 품는 한권을 지향했다. 한 편의 시는 작고 은은하지만 독자의 가슴에서 다시 태어날 때 가장 먼 곳까지 닿는다. 우리는 그 조용한 기적을 믿는다”면서 “시향은 앞으로도 한 호, 한 호 언어가 빚어내는 진실과 아름다움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원작 소설 읽고 영화보기…20세기소설영화독본

첫 모임 21일 고전 ‘전쟁과 평화’
격주 수요일 광주극장 영화의집서

소설과 영화를 좋아하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과 영화를 감상하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 인문학 모임 ‘20세기소설영화독본’이 2026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

모임은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격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광주극장 뒤)에서 이뤄진다.

오는 21일 진행될 올해 첫 모임은 대표 고전 중 하나인 ‘전쟁과 평화’로 시작한다.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는 프랑스 제국 나폴레옹 1세가 러시아를 침공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1805년부터 1820년까지 러시아 귀족사회와 민중의 삶을 방대한 스케일로 그려낸다. 단순한 전쟁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역사와 개인, 운명과 자유, 전쟁과 평화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룬다. 킹 비더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동명의 영화는 1956년 개봉했다.

이어 2월4일에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만난다.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17세기 네덜란드 델프트를 배경으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유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영화화된 피터 웨버 감독의 동명의 작품에서는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으로 열연해 당시 네덜란드 황금기를 조명한다.

3월에는 ‘여인의 초상’(4일)과 ‘도플갱어·에너미’(19일)를, 4월에는 ‘펠리칸 브리프’(1일)와 ‘파과’(15일), ‘그리스인 조르바’(29일)를 각각 만난다.

이외에도 ‘맡겨진 소녀·말없는 소녀’를 비롯해 ‘해저 2만리’, ‘화이트 노이즈’, ‘드라큘라’, ‘꾸뻬씨의 행복여행’, ‘햄릿’ 등의 원작 소설과 영화를 접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